

전남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지지부진

올 집행률 16개 시·군 평균 19.4%...장흥군은 지난해 한푼도 안써 전문성 부재·더딘 행정 절차 등 원인...전남도 "활용 방안 찾겠다"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시·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을 지역사회의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주도해 위기대응에 나서 수 있도록 신설된 기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로, 안이한 투자 계획 수립과 전문성 부재, 더딘 행정 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16개 소멸위 기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흥·함평 등 상당수 시·군의 저조한 집행 현황이 드러나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한 지역에 투

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 갑), 국회의원 조승환(부산 중·영도 구)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현저히 낮은 기금 집행률을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장흥군은 기금(80억)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 위기에 대한 장흥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흥군은 이미 받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기금(80억)을 교부받았는데, 올해 기금 집행률은 34.6% 수준이다.

이 의원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을 분석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구례(80억)와 고흥(64억)이 올해 기금을 집행할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남도도 이같은 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6개 소멸위 기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기금사업 집행률을 분석했다.

전남도는 특히 조 의원이 지적한 장흥군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를 적발하는 한편, 일부 사업(여흥 두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예초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납받은 뒤 내년 재배정해 추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전남도는 나머지 시·군의 집행률을 분석, 평균 19.4% 수준에 불과한 기금 집행률 제고를 촉구했다.

고흥의 경우 올해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구례는 80억 중 0.2%(19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성도 80억원을 교부받아 0.9%(6900만원)만 사용하는 등 기금 집행률이 극히 저조했다.

한 자릿수 기금 집행률에 그친 자치단체는 영암

(3.6%·64억 중 2억3300만원 집행), 함평(4.0%·80억 중 3억2200만원 집행), 진도(4.4%·64억 중 2억8300만원 집행), 장성(6.1%·80억 중 4억 9000만원 집행), 영광(6.9%·80억 중 5억 5300만원 집행) 등 5곳이었다.

기금 집행률이 10%대 수준인 곳은 담양(10.2%), 해남(14.1%), 강진(17.1%), 완도(18.5%), 곡성(19.2%) 등 5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신안의 경우 80억원의 기금 중 96.9%(77억 5000만원)를 사용해 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화순도 64억원의 올해 기금 중 75.6%(48억 3900만원)를 지역 발전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조한 기금 활용의 원인으로 미흡한 사업 계획, 전문인력 부재 등 자치단체의 무관심 뿐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지 매입, 설계 심사 등을 겪고 "시·군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조한 기금 활용의 원인으로 미흡한 사업 계획, 전문인력 부재 등 자치단체의 무관심 뿐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지 매입, 설계 심사 등을 겪고 "시·군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공원숲길·경관물길 개방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내 공원숲길과 경관물길이 열렸다.

2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개방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공원숲길과 경관물길에 대한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오룡지구 공원숲길과 경관물길은 지난 2020년 8월 일부 개방(공원숲길 1.0km, 경관물길 0.8km) 됐다가 오룡지구 2차 주민들 입주가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이남 공원숲길 1.8km와 경관물길 2.2km 등이 추가로 개방되면서 걷기를 즐기는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성된 공원숲길 등에는 대왕참나무, 메타세콰이어, 벚꽃, 편백 등 특화된 나무들로 꾸며져 여유롭게 자연을 느끼며 걷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국토부의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는 '보행자 중심도시 오룡지구'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상도 받았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는 2026년까지 수변공원을 포함, 보행자 중심의 품격있는 명품 신도시 조성을 마무리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 특별 프로그램

전남도립도서관 연말까지 도서 전시·완독 챌린지·독서토론

전남도립도서관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강 작가 도서 전시' 등 특별프로그램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사진>

도서 전시는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서관 문학자료실에서 진행한다. '채식주의자' 등 대표작과 시집, 동화, 영문 번역본과 작가의 추천도서, 2015년 전라남도 올해의 책에 선정된 '소년이 온다' 독후감 수상작 문집도 함께 선보인다.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도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한 달에 한 권씩 한강 작품을 '함께' 끝까지 읽는

'완독 챌린지'와 '온라인 독서토론'을 12월까지 추진하고, 한강 작가의 아름다운 글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필사 릴레이 체험' 코너도 마련했다.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과와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 특강'은 김영경 목포대 국문과 교수를 초청해 11월 7일 도립도서관에서 개최한다. 11월 16일엔 '소년이 온다' 배경인 광주 5·18민주화운동 유적지를 방문하는 '문학 기행'을 떠난다. 박용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한강 작가가 불러온 새로운 독서 열풍이 책 읽는 문화로 확산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탄력

전남도·8개 시군 신청 12개 사업 중 6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국제수목비엔날레도 통과됐고 순천이 추진중인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재정상태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화순군이 추진하려는 '뽕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과 강진군이 신청한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조성사업, 해남의 '목포구등대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과 '수산양식기저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재검토 판단이 내려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남도와 8개 시·군이 올린 12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돼 독자 추진이 가능해졌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다.

이런 행안부 투자심사에 올랐던 12개 사업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뒤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된 사업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최(전남도·총사업비 50억)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여수·1165억) ▲여수 시립미술관 건립(여수·323억)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순천·390억) ▲2025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영암·266억)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장성·477억) 등 6개 사업이다.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한 만큼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16만 4890㎡ 부지에 300척 보트 계류가 가능한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수 해양 관광·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성 폐기물처리시설은 5층 규모(연면적 3207㎡)로 하루 60 t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화순군이 추진하려는 '뽕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강진군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조성사업도 수요 대비 편익이 과다 추정된 점 등을 들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해남군 '목포구등대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남도 평생학습박람회

25일부터 이틀간 나누서 열려

'제4회 전남도 평생학습박람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나누서 빗가람 호수공원(야외무대) 일대에서 열린다.

2017년부터 열리고 있는 평생학습박람회는 전남의 평생학습 관계자가 모여 1년간의 성과와 정보를 한눈에 보고 즐기는 행사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주최로 열린다.

박람회는 전남의 새로운 브랜드(BI)를 반영한 'OK Now 평생학습 전남'을 주제로 홍보·체험관이 마련되고 평생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토크 콘서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홍보·체험관은 가상현실(VR)체험, 테라리움 만들기 등 110여개 동으로 구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